

## 축사



저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 모든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1973년에 창립되어 지난 50년간 꾸준한 발전을 이어왔고 이제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학회의 위상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선배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료 후배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학술 활동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금년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1973년 학회 창립 당시에는 정회원 95명, 학생회원 108명으로 출발하였으나 2023년 현재 정회원 3,086명, 학생회원 5,813명, 단체회원 47개사, 도서관 회원 46개사로 명실공히 국내 최대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학술지 JMB (J.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IF=3.277)는 SCIE 학술지로 등재 된지 30년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PubMed Central® 최종 등재지로 결정되어 더욱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MBL(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Letters)도 SCOPUS 등재지로 결정되는 등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들과의 학술교류와 과학기술 협력 연구로 그 지평을 더욱 넓혀가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학술분야 중에서도 미생물 생명공학 분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회는 더욱 학술 활동에 정진하여 미생물 생명공학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회원간 학술활동, 사회적 공헌 등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50년사”를 발간함에 있어 편집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홍순광 위원장님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시는 서강대학교 이규호 학회장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명희 간사장님, 부회장님, 간사님들의 수고에 KMB 아카데미 전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MB 아카데미 17대 회장

**유익동**